



필연적 독해, 기능성의 발견

/ Evidence Based  
problem Solving/

— Review lessons

- 저자 : 김민수



필연적 독해, 가능성의 발견

/Evidence Based

problem Solving/

— Review lessons

## 들어가기에 앞서...

짧은 연구기간이지만 확실하고 올바른 방법론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기본 중의 기본부터 심화까지 넓은 범위를 다루며, 이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 지문을 접해 보시면 글을 대하는 태도나 읽는 방법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교재의 지문은 평가원과 교육청, 사설 그리고 자체 제작 지문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예시 문항 또한 존재합니다. 예시 문항의 경우 이 교재에서 가르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체화했다면 무리 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제가 현역 때부터 지금까지 느낀 것을 모두 망라한 것, 사과의 정수가 담겨 있으므로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확실한 성적 상승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교재의 특징

교재는 볼륨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초반부의 정보량은 극히 적은 편에 속하나 뒤로 갈수록 양도 늘고 배워가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초반부에서 기초 문장 독해 능력을 기르고 뒤로 가면서 배웠던 것들과 배워야 할 것들을 합하여 교재의 진도를 나가시길 추천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체화서를 통해 감을 익히시고 교재의 장점인 짧은 분량을 통해 빠르게 1회독, 2회독 하시면서 체화하시길 바랍니다.

### 활용 방법

이 교재는 누적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습을 할 필요는 없으나 복습은 철저히 해주셔야 나중에 제대로 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원의 스킬에 얽매이지 않고 한 가지 독해 습관이라도 제대로 갖추어 나가자는 마인드로 학습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1~2 단원에 모두 담아 뒀으며, 3~5단원은 실전 학습 쪽에 가깝습니다. 1~2단원을 최소 3회독을 하신 후 3~5단원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단원과 CONTENTS들 간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하니 그것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단원 별 -개념 학습-을 본 다음 어떤 주제의 내용을 다루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 학습Tip)을 읽고 학습에 필요한 관점을 익힙니다. 그 다음 -연습 지문-을 통해 실전감각을 키웁니다. 글이 어떻게 전개될 수밖에 없고, 어떤 독해법을 다루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다음 단원이나 소단원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소단원의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에 대해 꼼꼼이 생각을 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책의 독해 방법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책의 내용을 꼭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신 다음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학습 Tip)과 지문 독해Tip)에 중요 포인트를 적어 놓았습니다. 복습할 때 이를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예습법

예습법은 지문 해설이 없는 본교재에 있는 지문을 보고 지문에 해당하는 소단원의 제목을 봅니다. 그 다음 그 소단원명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독해 방법을 사용하여 독해합니다. 그 다음 자신만의 구조도를 그리거나 요약-정리를 하여 복습복의 해설과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 복습법

애당초 이 교재는 강의용 교재입니다. 지문만 있는 부분을 먼저 독해하신 뒤 복습복의 해설을 참고하며 자신의 독해 방법과 이 책이 제시하는 독해 방법을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처음부터 복습복의 개념 설명을 보고 지문만 있는 본교재에 적용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복습법은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자신의 독해 방식을 비교한 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한 뒤 제 방법이 더 정답에 가깝다고 느껴지시면 이 교재의 방법론을 체화를 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따라 구조도를 그린 뒤에 자신의 구조도와 비교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단원 이름과 맞게 자신이 배운 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중간 중간 점검을 합니다.

## 마치며

이 교재를 집필하게 된 계기는 수험생들이 시험의 본질을 잊은 채 배경 지식을 쌓아 지문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수능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논리학 지식(형식 논리나 과한 정도의 기호 논리)을 배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려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이름에 걸맞게 정말 필요한 지식들만 최소화하여 담았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1등급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비문학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양이라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양이지만 알찬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수능 출제 경향

## 최근 모의고사, 수능의 경향

최근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의 지문 서술 방식이나, 문제 출제 경향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지문의 문장 개수는 줄어들고,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단순히 짧은 문장의 나열이 아닌 문장 간의 유기성은 점점 더 올라가서 한 문장이라도 놓치는 경우 독해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보의 밀도는 높아지고,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줄어들어 글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고도 충분히 고난도 지문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이 약한 학생들은 지문 독해와 문제풀이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경우 더욱 고난도의 추론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지는 단순한 지문에 끼워 맞추기가 아닌 논리적 연결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장 간의 유기적 독해가 더욱 중요해 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능이 요구하는 바가 변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지문의 핵심을 찾는 것에서 나아가 지문의 핵심과 핵심 사이의 논리적 연결, 핵심들 중에서도 경중을 따지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이 문제는 왜 물어보지?”, “이 문제는 어떤 것을 평가하고 싶은 것이지?”, “이 문제는 왜 냈지?” 등 평가원에게 질문을 해야 될 때입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을 고르든, 옳은 것을 고르든 선지는 지문의 핵심을 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평가원이 출제하는 양질의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들을 통해 기초부터 실전까지 모두 익힐 수 있습니다. 한번 봤던 지문, 문제라고 해서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글이 왜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무엇을 평가하고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곱씹고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재를 통해 평가원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본적인 글의 흐름과 논리 구조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글의 흐름과 논리 구조 4가지

## ① 2개 이상의 화제 제시형/대립되는 관점 제시형

첫 번째로 화제(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거리)가 두 개 이상 나오는 유형이나 대립되는 관점을 제시하는 유형을 말한다. 구별되는 화제 간 공통 범주가 있을 것이며, 그 공통 범주 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대비-대조-비교하는 형식이다. 이 경우 상대어(같은 범주 내에서, 논리적 구조가 같은 범위 내에서 서로 대비되거나 차이점을 보이는 말)간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찾아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글을 읽어 가면 되는 것이다.

대립되는 관점 제시형은 한 가지의 주제를 두고 서로 상이한 관점으로 글을 써내려 가는 것이다. 이 유형도 2개 이상의 화제 제시형과 마찬가지로 같은 공통 범주 내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로 이러한 방식으로 글이 쓰일 경우 두 가지 관점이나 개념 중 한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주장하여 글을 마무리하거나,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주제를 절충하여 글을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다.

## ② 개념 제시/정의형

이 유형의 경우 한 가지 주제에 대해 “A는 B이다.”식으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려 그것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글이 다루는 내용은 “왜 A는 B인가?”, “어떻게 A는 B인가?”, “무엇이 B인가?”등 B에 초점을 맞춰 적당한 의문을 던지며 글을 읽어 나가면 된다. 이런 글은 대부분 결론에 핵심이 존재하는데, 이는 결론이 ‘앞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받아주기 때문이다.

## ③ 문제 제기형

문제 제기형의 경우 “A에는 B라는 문제가 있다.”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다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글이 쓰인다. 이러한 글의 특징이나 핵심을 잡는 법은 문제의 대상 A와 문제인 이유를 붙여 읽거나, 문제의 대상A와 해결책을 서로 붙여 읽는 것이다.

## ④ 통념 비판형

통념 비판형은 주로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등의 통념을 드러내는 표지가 있다. 주로 글이 전개될 때, 이러한 통념을 비판하며 통념의 속성 A가 있을 때, ~A나 직접적으로 A와 반대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글을 쓴다. 통념에 대한 비판이나 반박에 대해 ‘왜 그런 것인지’, ‘어떻게 그런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의문을 갖고 읽으면 된다.

# 차례

## 1단원 — 걸음마 (미시 독해)

1.1 접속사의 의미와 활용 .....	11
1.2 의문사를 이용한 독해 .....	14
1.3 두 단어 간의 관계를 통한 독해 .....	16
1.4 비교를 통한 읽기 .....	18
1.5 범주 확장 .....	20
1.6 관형어(질)로 읽기 .....	22

## 2단원 — 걷기 (문장 독해)

2.1 서술어로 예측하기 .....	24
2.2 상대어로 예측하기 .....	26
2.3 수식어(언)으로 예측하기 .....	28
2.4 두 단어로 예측하기 .....	30
2.5 접속사 문장으로 지문 예측하기 .....	32
2.6 ? — ! .....	33
2.7 조사의 역할과 활용 .....	35
2.8 사례와 일반화 .....	37
2.9 동의어 찾기 .....	39
2.10 비례 관계 잡기 .....	40

### 3단원 — 달리기 (문단 독해)

3.1 개념 정의 .....	43
3.2 $1+2=3$ .....	46
3.3 문제 제기 .....	50
3.4 통념 비판 .....	52
3.5 문단 요약 트레이닝 및 핵심 문장 찾기 .....	55
3.6 핵심 문장 간의 연결 .....	59

### 4단원 — 실전 연습 (거시 독해)

4.1 인문 .....	62
4.2 예술 .....	63
4.3 과학 .....	64
4.4 기술 .....	65
4.5 경제 .....	66



## 1.1

# 접속사의 의미와 활용

### [개념설명]

접속사의 의미, **접속사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앞과 뒤의 내용을 동등하게 이어주거나, 앞의 내용을 뒤에서 부연설명을 하거나, 혹은 앞과 뒤가 상반되는 내용을 서술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이 세 가지로 대부분을 다룰 수 있으니 세 가지만 확실히 익히고 가도 된다.

#### 접속사의 활용, 최다 빈출 접속사 여섯 가지로 익히기 (중요도 순)

- ❶ 그러나 :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
- ❷ 그리고 :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
- ❸ 하지만 :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접속 부사.
- ❹ 그런데 :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
- ❺ 따라서 : 앞에서 말한 일이 뒤에서 말할 일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
- ❻ 그래서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TIP** 접속사를 기준으로 문장의 앞 뒤 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점이다. 접속사로 이어진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서로 붙여 읽는 느낌이 들도록 읽어야 한다. 추가로 '그러나', '하지만'과 같은 접속사가 나왔다면 반전 전의 내용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 소단원에서 여섯 가지 접속사 모두를 다루는 것이 아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다룰 예정이다.

### [연습지문]

1.

프랑스 시민 혁명 후에 나온 인권 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법적인 평등권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남성에게만 주어졌을 뿐이다.

**Comments** '그러나'의 역할은 앞 문장에 있던 내용을 부정하거나 반대해석 하여 뒷 문장에 힘을 실어 줘, 뒷 문장을 강조하거나 핵심을 나타낼 때 쓰인다. '그러나'가 나오면 앞 문장을 부정하거나 반대 해석하여 뒷 문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이나 반대해석을 할 경우 동일 범주 내에서 해석을 해야 함을 주의하자. '그러나'가 나오면 모든, 어떤 과 같은 부사들이 부정되므로 '모든'은 '어떤'으로 '어떤'은 '모든'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A만', 'A뿐'과 같은 식으로 서술한 뒤 '그러나'가 나오면 'A에게도', 혹은 'A뿐만 아니라'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2.

仁(인)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정의되며, 그런 정의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인의 핵심적인 의미는 어쩌면 놀랄 만큼 단순하고 명료하다.

**Comments**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기는 하다.” 다음 “하지만”이 나왔기 때문에 앞 절의 “여러 논의”보다 “하지만”의 뒤에 나온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의 역할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쓰는 접속사이다. ‘그러나’보다 더 넓은 범주의 쓰임을 갖는 접속사이다. ‘하지만’이 나올 때는 그러나와 마찬가지로 ‘A는 B이다.’ 혹은 ‘A는(가) B하다’식으로 글이 전개될 때, 앞의 A의 범주는 그대로 두되, 뒤에 나오는 B의 속성을 부정하거나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또는 A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다른 대상인 C를 끌어 들여 ‘C는 ~B하다.’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다른 접속사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과약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정한 사유의 틀이 존재하는데, 외부에서 주입된 사유의 틀 때문에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인위에 의해 형성된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장자>에 나오는 도가적 수양법을 제시하였다.

**Comments** ‘그래서’ 혹은 ‘따라서’는 쓰임이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엄밀히 구별하려 하면 안 되고, 이 둘이 나올 때는 원인->결과, 주장->근거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글을 더욱 잘 읽을 수 있다. ‘따라서’는 사전적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앞 말이 뒷말에 대한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한다. 이러한 사용은 문장과 문장을 서로 붙여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한 문장과 또 다른 한 문장이 ‘따라서’로 이어져 있다면 A->B 정도로 구조도를 그려도 괜찮다.

#### 4.

당시 주변 화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희는 중고 시장에서 산 구두를 신고 맑은 날이든 곳은 날이든 주변의 언덕을 가로질러 외곽 도로를 누볐고, 그 구두가 완전히 일그러진 다음에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고 한다. 따라서 샤피로는 그림 속 구두가 고희 자신이 신었던 구두를 모델로 삼아 창작된 것이라 보았다. 이처럼 샤피로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림 속 구두의 소유주를 찾아 특정 주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는 이러한 샤피로의 주장이 예술 작품을 대상의 모방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Comments** 첫 번째로 볼 것은 “따라서”인데, 이것은 원인→결과를 나타내는 서술 방식이다. “따라서”의 앞 문장인 샤피로의 의견은 “따라서”의 뒷 문장을 근거로 하여 도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 내용의 양상을 받아 뒤의 문장을 이끄는 부사인 ‘이처럼’을 이용하여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다. “객관적 사실”이란 말과 앞 문장의 내용인 ‘고흐가 신고 다닌 구두에 대한 역사’와 동일한 범주의 내용이다. 즉, ‘고흐가 구두를 어디든 신고 다녔음.’은 “객관적 사실”인 것이다. 그리고 지문 전체를 보지 않아 샤피로가 주장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지문에 주어진 정보로만 해석해 볼 때, 첫 번째로 샤피로의 주장은 ‘이처럼’이후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림 속 구두의 소유주를 찾아 특정 주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일단 이러한 주장을 A라고 하자. 그리고 ‘그런데’를 사용하여 프랑스 철학자인 데리다를 소개하면서, 데리다의 입장을 빌려 샤피로의 주장A를 지적했다. 이 지문을 보고 알 수 있듯이 ‘그런데’가 사용됨으로써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다. 요약하자면 샤피로의 주장이 나온 뒤 ‘그런데’를 이용하여 동일 범주 내에서 글을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글을 쓰기 위해 서술했다는 것이다.

## 1.2

### 의문사를 이용한 독해

#### [개념설명]

**의문사란?** 의문의 초점이 되는 단어를 뜻한다. 국어에서 주로 쓰는 의문사는 Why, What, How이다. Why는 주로(밑줄을 친 이유는 매번, 항상,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로”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지,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진다. 가령 국어에서 “A는 B이다.”와 같은 단순 정보가 나왔을 때 Why를 활용하여 의문을 가진다면 평가원은 그에 답하듯이 서술해 줄 것이다.

What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가(는) B했다.” 혹은 “A는 B와 C로 이루어진다.”와 같은 발문이 나타났을 때 What이라는 의문을 가진다면, 그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답변을 지문이 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How는 주로 과학이나 기술 혹은 경제지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문 특성상 과학-기술, 경제에서 과정과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How를 지문 속에 심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점은 Why은 언제 쓰고 What은 어떠한 때 쓰고 그런 것이 딱딱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사고하며 ‘의문을 던지는 것’자체가 중요하다.

**TIP** 되도록 처음 연습할 때에는 언제 의문을 던져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 문장마다 의문사를 던져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 [연습지문]

1.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Comments** 짧은 문장들이지만, Why(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닌지, 왜 예전부터 압력이 있었는지.)나 What(무슨 개혁론이 등장하였는가.) 같은 두 개 이상의 의문사를 던질 수 있어 아주 훌륭한 연습 문장이다. 이러한 복수의 의문사를 던질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답을 다 해 줄수록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한다.

## 2.

우리가 갖는 모든 욕망이 다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욕망은, 그것을 충족시킬 수 단이나 능력이 없어서 충족되지 못하기도 한다. 또 어떤 욕망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한다.

**Comments** 여기서는 의문사 Why를 던져야 적절하다. 왜 충족될 수 없는지는 기본이고 나아가 지문을 예측한다면 충족되려면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하는 지 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단 $x$  능력 $x$ =>욕망 충족 $x$ 라면, 수단 $o$ 능력 $o$ =>욕망 충족 $o$  라는 걸 도출할 수 있는 건 덤(사회적으로 금지된 욕망 내용에서도 반대해석을 할 수 있음.), 추후에 배울 내용이긴 하다. 또한, '어떤'이 나왔기 때문에 욕망에도 종류가 많다는 것(충족될 수 있는 욕망과 그에 대한 조건, 충족될 수 없는 욕망과 그에 대한 조건 등)을 잡으면 지문을 읽어 나가기 한결 수월할 수 있다.

## 3.

영국의 경제학자 기펜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소비패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감자의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그것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나야 할 텐데, 오히려 줄어드는 반응이 나타났다.

**Comments** 여기서는 의문사 What을 던지고 Why를 던질 수 있다. 첫 째, 이상한 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 왜 이상한지, 이 두 의문을 가져야 한다. 만약 내가 글을 쓴다면 첫 번째로 이상한 현상에 대해 서술할 것이고, 그를 뒷받침하는 이상한 이유를 서술할 것이다. 높은 확률로 지문도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한다.

## 4.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본 사람은 한 번쯤 '어떻게 작은 파일 안에 수십만 장이 넘는 화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동영상 압축은 막대한 크기의 동영상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만 남김으로써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이 데이터의 양을 수백 분의 일까지 줄이는 기술이다.

**Comments** 추후 배울 내용이지만 글에서 명시적으로 ?-! 구조임을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작은 파일 안에 수십만 장이 넘는 화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문장으로 질문을 던진 다음 '동영상 압축'이라는 기술을 서술함으로써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또한 요약하여 핵심만 보자면, 밑줄 친 '어떻게'와 '필요한 정보만 남김'은 대응이 되는 부분이다.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필요한 정보만 남김'이라는 해답으로 답변한 것이다.

## 1.3

### 두 단어 간의 관계를 통한 독해

#### [개념설명]

보통 “A와 달리 B는” 식으로 나올 경우 A를 기본으로 B를 서술하기 위해 쓰인 글이다. 당연히 B가 강조되어 핵심인 경우가 주를 이루고, A를 통해 B를 이해(반대해석이나 논리적 부정을 건다) 할 수 있다.

혹은 동양과 서양, 개인과 집단, 보편과 상대, 주관과 객관, 자아와 타자 등 상대어를 통해 독해 할 수 있음을 알아두자.

**TIP** 주로 나오는 상대어는 정해져 있으니 기출 문제를 풀면서 알아 두자, 혹여 수능 날 새로운 상대어가 나오더라도 둘을 같은 공통범주 안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잡아가면서 범주화 시키자.

#### [연습지문]

1.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진 비율에 따라 의사 결정권이 부여되므로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협동조합에서는 대체로 조합원 한 사람에게 한 표의 의사 결정권이 부여되므로, 조합원의 의사가 존중된다.

**Comments** A와 달리 B는 구조이다. 지문에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윗글에서 의사결정이라는 같은 범주 안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집단이 다르게 잡혀 있다. 주식회사와 “달리” 를 사용하여 협동조합을 서술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말을 통해 주식회사의 구성원과 어떤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 또한 궁금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내용은 두 번째 문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대주주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을 통해 주식회사의 결정 방식에 반대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핵심은 조합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한 표의 의사 결정권이 부여되어 조합원의 의사가 존중된다는 점이다. 즉, 요약하자면 의사 결정->주식회사-대주주, 협동조합-조합원이다.

## 2.

동양화와 서양화는 그림을 그리는 재료도 달랐다. 동양에서는 농담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먹물을 붓으로 화선지나 곁이 고운 비단 위에 그렸다. 서양에서는 주로 캔버스에 유화 물감이나 기름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Comments** 재료‘도’ 다른 것이므로 다른 요소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어야 한다. 윗글은 직접적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사용하여 상대어를 제시해주고 있다. 동양에서는 농담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먹물로, 서양에서는 유화 물감이나 기름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서 재료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앞으로 제시될 글을 간단히 예측해 보자면 동양에서는 농담에 따른 그림의 특징과 양상, 서양에서는 유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의 특징과 기름으로 그린 그림의 특징을 대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양화의 특징과 서양화의 특징을 대비하여 글을 전개할 수도 있다.

## 3.

전통적으로 학문 세계에서는 소비보다 생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Comments** 전통이 나왔다. 그렇다면 현대나 현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을 생각해 두고 글을 읽어야 한다. 전통의 속성이 소비<생산이라면 ~전통의 속성은 소비>생산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해야 한다. 뒤에 ‘그러나’ 혹은 ‘하지만’과 같은 접속사를 이용해 현대나 현재의 속성(소비)생산) 혹은 생산의 중요성 보다는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